

## 고지도 발달사

# 4장

## 조선시대 이전의 지도

### 1. 고대에 제작된 지도

“지도의 역사는 문자보다 오래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문자를 갖고 있지 못했던 선사시대 주민들도 지도를 만들 줄 알았고, 또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방동인, 2001).

근래에 북부 이탈리아의 알프스 산록을 흐르는 캄모니카 계곡에서 빙하의 침식을 받은 암벽에 그려진 선사시대 지도가 발견되었다. 이 지도는 B.C 1,500년경에 새겨진 것으로 추산되는데 직선과 곡선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주위에는 사다리 모양을 한 가옥과 가축까지도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 많은 암각화가 새겨졌다. 이들 암각화는 선각, 면각, 기하문 등으로 새, 배, 호랑이, 물고기, 여성의 성기 등을 새긴 일종의 그림지도인데 다음과 같다.

#### 1) 안동 한들 바위그림

경북 안동시 수곡면 한들바위 뒷산의 경사면 바위에 새겨진 암각화이다. 선각, 점선각, 면각 등으로 말발굽, 새그림, 발자국 등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 2) 영일 철포리 바위그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철포리 곤륜산 일대에 있는 11종의 바위그림이 있다. 곤륜산을 중심으로 서북쪽 기슭의 바위 4면에는 총56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방패형기하문이나 원형다공문 등으로 돌검, 옷판, 동물발자국 등이 새겨져 있다.

## 3) 경주 금장대 바위그림

경북 경주시 석장동 서천의 절벽 바위에 새겨진 바위그림이다. 남향을 한 바위에 방패형기하문으로 사람의 발자국, 배, 여성의 성기 등을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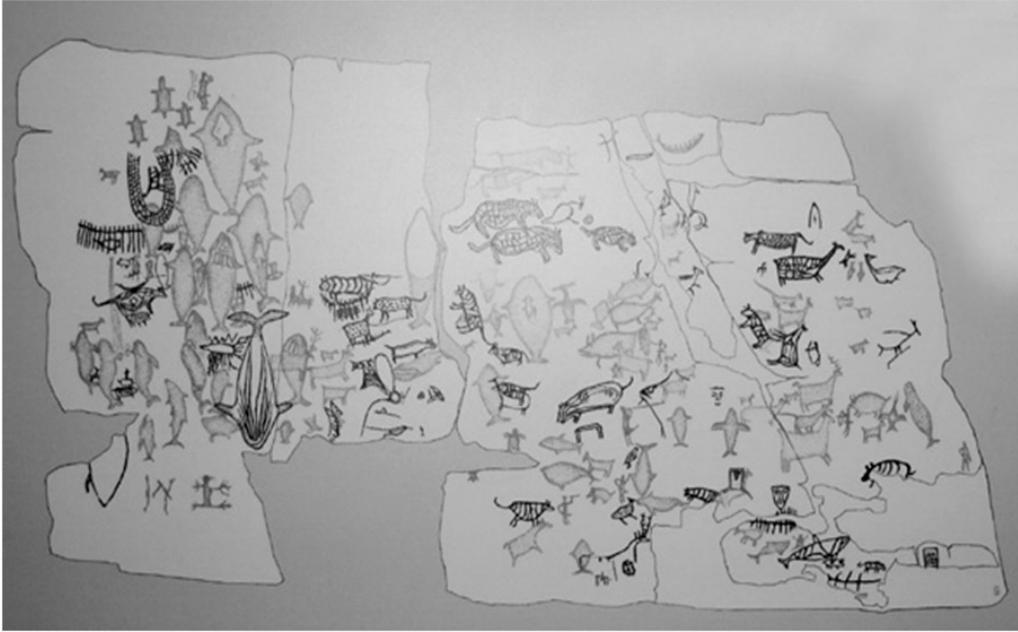
## 4) 울주 반구대 바위그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대곡동 태화강 상류의 반구대의 암벽에 그려진 그림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여러 가지 동물과 사람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가장 지도의 형태에 가까운 암각화이다. 인간의 활동을 담은 그림이 8점, 고래나 물고기·사슴·호랑이·멧돼지·곰·토끼·개·늑대·거북이 등의 동물 그림이 120점, 고래잡이 하는 배와 어부들, 사냥하는 모습 등이 5점을 비롯하여 150여점의 그림이 바위에 묘사된 그림지도이다.

바위그림 오른쪽 끝 맨 위에는 긴 꼬리의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반대 방향으로 목이 긴 사슴 같은 동물도 있으며, 그 밑에는 꼬리를 곧추 세운 고양이 같은 동물, 염소 같은 동물이 그려져 있다. 사슴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의 배가 불룩하게 묘사된 것은 동물들이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림일 것이다.

암각화의 왼쪽 끝 상부에는 고래와 U자형 목책 등이 그려져 있는데 고래 그림 중에는 큰 고래를 묘사하고 그 고래의 입 부분에 조그마한 고래를 묘사하여 고래가 새끼 뱀 모습을 나타내며 고래가 포유류 동물임을 알고 표시한 듯하다. 큰 고래의 좌측 상부에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 인물 왼쪽에는 세 마리의 거북이가 새겨져 있다.

U자형 목책은 어망처럼 보이기도 하며 그 가운데 한 마리의 동물이 그려진 점으로 미루어 짐승 잡는 도구로 보이며, U자형 목책 밑 우측 하단에는 5인이 타고 있는 배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그림 4-1] 울주반구대 벽화 ①



[그림 4-2] 울주반구대 벽화 ②

또 다른 목책은 고기잡이 도구로 보인다.

U자형 목책의 오른 편에는 호랑이와 목책, 그리고 반점이 있는 표범이 묘사되어 있고, 그 왼편에는 호랑이 같은 동물이 똑바로 서있는데 배가 많이 불러 있는 모습이고, 그 하단에는 늑대가 새겨져 있으며, 그 밑에는 수영하는 고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바위그림은 바위면을 도구로 쪼아서 만들어진 그림으로 사실주의적 묘사와 추상주의적 묘사가 함께 어울려져 있다. 동물 중 일부는 갈비뼈와 속이 훤히 보이는 윈트겐식 표현법을 쓰고 있다. 이 바위그림은 정면관이나 배면관은 일부이고 대부분이 측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대 그림의 표현방식이었다(조유전, 1997).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는지는 그림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이 그림들이 한시기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를 두고 그려졌으며, 그림 위에 추가로 포개져 있는 그림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윈트겐식이거나 쪼는 방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동기 후기부터 원삼국기 초까지 그려진 B.C 300~기원후 100년경의 4세기 동안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그림지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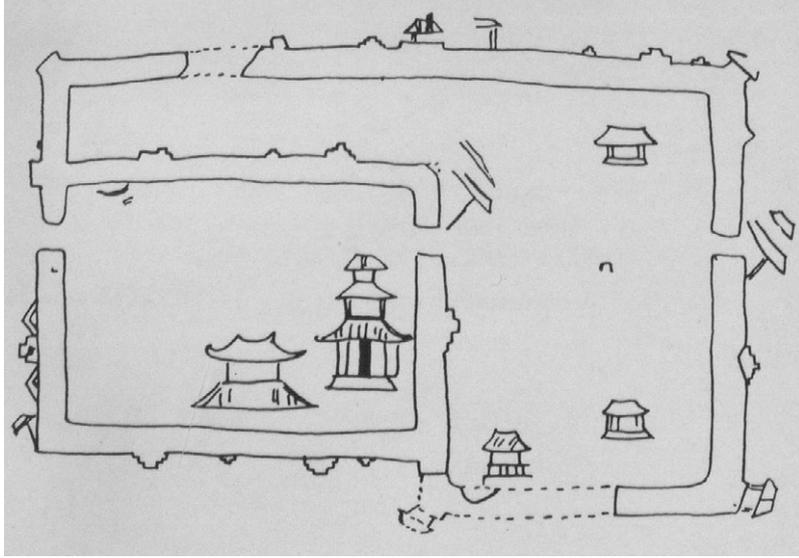
이 그림은 고대 원시인의 자연환경 및 동물 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인지 정도를 보여주며 배가 부른 모습의 동물 묘사나 모자 고래와 같은 묘사는 이 바위그림이 풍요와 다산을 비는 성스러운 의례장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그리고 이 바위그림은 동물, 어류 등의 수렵 방법을 생생히 보여주는 자료로 당시 사회에서 어로·수렵의 중요성, 비중 있는 동식물 등에 관한 자료, 배를 타고 있는 모습 등 선박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고대의 대표적 그림지도이다.

## 2. 삼국시대에 제작된 지도

우리나라에서 지도(地圖)를 처음 그리기 시작한 것은 선사시대부터이지만 기록에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에 국경이 확정된 후 영토에 대한 관심이 커진 때부터였다(김양선, 1972).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많이 확장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지도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존하는 기록에 의하면, 『삼국사기(三國史記)』<sup>1)</sup>와 『구당서(舊唐書)』에 고구려 영류

1) 三國史記, 卷第20, 高句麗本紀, 第8, 고구려 영류왕 11년조.



[그림 4-3] 『요동성도』

왕 11년(628)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봉역도』라는 고구려 지도를 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도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53년 북한의 평남 순천군에서 발굴된 고구려의 고분에서 요동성시의 그림지도(그림 4-3)가 발견되었다. 이 벽화지도는 요동성 내외의 지형, 성시의 구조, 도로, 성벽과 그 시설물, 3층 석탑과 건축물들이 그려져 있고, 하천·산·도로 등이 적·청·보라 등을 써서 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은 조선시대 여러 성시의 회화적 지도와 매우 비슷하여 그림지도의 형식은 이미 4세기 무렵에 고구려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 활동하였던 이첨(李詹)이 쓴 『고구려지도(高句麗地圖)』 후기에 의하면 고구려시대에도 이미 지도를 만들고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리지에 말하기를 한나라 공주를 안장왕이 계백현에서 영접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현의 명칭을 왕봉현으로 개칭하였는데 지금의 행주(幸州)이다. 봉화로써 왕을 달성현에서 영접하였기 때문에 고을 명칭을 개칭하여 고봉현이라고 하였다. 또 왕씨 시조가 백제를 치기 위하여 남주군에 주둔하면서 전쟁의 승부를 점쳐 보았는데,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징조가 있으므로 고을 명칭을 이천현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군현의 명칭은

경덕왕 때 일제히 개칭한 것 외에 추가로 개칭한 것이 있다. 무릇 군현명칭은 옛 이름을 모두 적고 지금 명칭은 주(註)로서 적었다. 삭정이북과 평양이서는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곧바로 지금 명칭을 적었다.”

위의 기록을 참조하면 고구려 군현의 변천이나 지도에 옛 지명과 현 지명을 병기한 지도를 제작하였음을 말해 준다.

백제의 지도와 지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관련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그 때 도적(圖籍) 안에 여주(餘州) 2자(字)가 있었다.…… 여주는 지금의 부여군(扶餘郡)이다. 백제지리지(百濟地理志)에 말하기를……”(『三國遺事』 卷2, 南扶餘)

위에서 도적(圖籍)이라 함은 그 내용으로 보아 지도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던 고려시대에도 백제지리지(百濟地理志)가 남아 있었음을 알려 준다. 백제에서 지리지를 편찬하였다는 것은 백제가 국토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백제의 지리지는 중국의 후한서, 북사, 구당서, 신당서 등에도 인용되고 있다.

백제는 일본과 밀접한 문화 교류가 있어 무왕 때에는 관록 등을 파견하여 일본에 천문·역법·지리 등을 전해 준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백제 계통의 승려인 행기(行基)가 그린 『행기식일본도』가 있다. 이 지도는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일본을 대표하는 지도이다. 이러한 지도제작 기술이 일본에 전래된 점으로 미루어 백제에서도 지도를 제작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앞에서 인용한 이침은 백제에서도 지도를 제작하였음을 백제지도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백제 시조 온조왕은 졸본부여로부터 한산(漢山)에 이르러 도읍을 위례성에 정하였다가 후에 한산, 웅진, 사비성 등으로 옮겼다. 옛 이름을 새로운 고을에 그대로 사용하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고쳤다. 마한 땅에 살기를 원하다가 드디어 마한 땅을 병합하였다. 나라의 수도는 점차 남쪽으로 옮겼으나 침략하고 토벌한 곳은 늘 북방에 있었다.”

백제가 도읍을 위례성에 정하였다가 한산, 웅진, 사비 등으로 옮기는 과정과 마한을 병합하고 나라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지도를 통하여 소상히 밝히고 있다.

신라의 경우는 “신라의 영토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기록과 “고구려의 주군현(州郡縣) 164곳이 있는데, 신라에서 고친 이름과 지금의 이름이 신라지에 보인다”(『三國史記』卷34, 雜誌3 地理1)라는 기록으로부터 지리지의 편찬을 짐작할 수 있다(『三國史記』卷37, 志6 地理4 高句麗) 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시기에 지도를 이용했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문무왕 10년) 7월에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김흠순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장차 경계를 구분지어 정하려 할 때, 지도(地圖)에 의하여 살펴보면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당나라에) 돌려달라는 것이었다.”<sup>2)</sup>

이 기사는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흠순이 귀국하여 문무왕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당나라는 신라에 대하여 점령한 땅의 경계를 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제의 옛 땅을 대부분 당나라에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러한 경계 획정을 지도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당나라가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에도 지도를 제작하여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는 지도는 없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전국에 9주의 행정구역을 설치했는데 고산자 김정호의 『청구도(靑邱圖)』 부록에 삽입된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를 참고해 보면 통일신라에서도 9주의 강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하였을 때 당에서 제작한 『서주나성도』를 보고 서주 나성(羅城)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며, 신라에 돌아와서 『여지도(輿地圖)』를 보고 “곤륜산이 동쪽으로 달려 5산의 푸르름이 되고 별들은 북쪽으로 흘러 큰 강을 이루었네”라고 시를 지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신라에서도 지도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도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전해 온 것 같다. 숙종 20(1694)년에 남구만이 안용복 사건을 논의하면서 『신라도(新羅圖)』를 이용하여 울릉도는 우산국이라는 국명을 가지고 있었고 신라에 복속되었음을 언명하고 있다.

2) 『三國史記』卷7, 文武王 11年 7月條, “至七月 入朝使金欽純等至 將劃界地 按圖披檢百濟舊地 摠令劃還”.

한편 불교가 성행하면서 당나라나 인도에 구법(求法)하는 유학생과 승려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외국에 대한 지리지식이 확대되어 갔고, 이들을 통하여 지도나 지리서 등이 전래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영향을 신라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도 신라의 중 혜초(慧超)가 인도 전역을 여행하고 그 여행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썼는데 이 여행기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관한 귀중한 기록으로 평가된다. 『왕오천축국전』에는 이 지역의 정치 정세와 사회상에 대한 것은 물론 음식, 옷, 기후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교와 불교의 수입과 함께 다신신앙과 어울린 각종 산천 숭배사상이 지도제작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3산과 5악의 명산대천 숭배사상과 이들을 국가에서 중시하고 대사(大祀), 중사, 소사로 나누어 제사지냈고 이들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였을 것이다. 신라 말에는 선종의 9산이 발달되었으므로 9산의 분포도를 표시한 지도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덕왕 때에는 삼국통일 후에 고구려, 백제에서 사용하던 군현명을 전부 한자식으로 개칭하였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리지가 편찬되었을 것이고 그에 맞는 지도도 제작되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지도와 지리지의 발달을 알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1953년에 일본의 나라현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장적(新羅帳籍)』을 들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촌락의 명칭과 그 영역, 호구수와 인구수, 우마수, 토지 면적, 뽕나무와 과일나무의 수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세한 기록은 지도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3. 고려시대에 제작된 지도

#### 1) 풍수지리설과 지도

우리나라에서 지리지와 지도를 논할 때에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을 빼 놓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시대에 따라 내용상으로 변질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주요 지리사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풍수지리가들은 국가의 시험을 통하여 관리가 되고 이들은 지도제작에 반드시 참여하는 필수요원이었다. 이들을 상지관(相地官)이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에도 지관(地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 상지관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이다.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도선(道詵)이 중국에서 수입한 사상인데 그는 풍수지리설과 음양도참

설(陰陽圖識說)을 골자로 하는 『도선비기(道說秘記)』를 지었다. 도선비기는 풍수지리설에 불교의 선근공덕사상(善根功德思想)과 음양오행설을 결합한 이론으로 고려의 정치 사회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도선의 이론에 의하면 지형(地形)이나 지세(地勢)는 국가나 개인의 길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리쇠왕설이나 지리순역설을 주장하였는데 왕처(旺處)나 순처(順處)를 명당이라고 하고 이 명당에 주택이나 분묘를 지으면 국가나 개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쇠처(衰處)나 역처(逆處)에 주택이나 분묘를 지으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도선의 풍수지리설은 산형과 지세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지도작성에는 필수적인 요소이었다.

풍수지리학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지리학의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연관을 맺고 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 다른 나라 지도와 달리 산천 내맥(來脈)을 매우 중시한 것은 상지관들이 지도제작의 필수 요원으로 참여하여 지도를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 2) 삼국도후서(三國圖後序)와 고려도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에 비해 훨씬 다양하게 많은 지도의 제작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기록은 많지 않다. 고려시대 편찬된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지도 작성의 기초단위가 되는 ‘양전장적(量田帳籍)’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양전장적이란 논과 밭을 측량한 장부로 이 장부에는 논과 밭의 지번(地番)이나 땅의 생김새, 사방경계, 경작자의 이름 등이 적혀 있다 이는 오늘날의 지적도(地籍圖)의 성격을 갖는 문서이며 신라장적이 그런 문서이다.

이런 문서는 지도 작성의 기초 자료인데 고려시대 지도제작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은 이첩이 쓴 『삼국도후서』이다.

“명(明) 나라가 황통(皇統)을 이룩하자 바로 사해를 차지하여 한 자의 땅이나 한 치의 하늘조차도 모두 판적(版籍)에 들어갔으니, 광대한 여도(輿圖)와 폭원(幅員)에 대해 반드시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전 주(周) 나라 때에는 대사도(大司徒)가 천하 토지의 지도를 맡아서 폭원의 수를 골고루 알았는데, 직방씨(職方氏)의 그림이 더욱 자세하였다. 한(漢)

나라가 진(秦) 나라를 쳐서 없앨 무렵에 소하(蕭何)가 먼저 지도를 거두어서 비로소 천하의 요새와 호구의 많고 작은 차이를 다 알게 되었고, 광무황제(光武帝)는 『여지도(輿地圖)』를 펴면서 등우(鄧禹)에게 지시하기를, “천하의 군현들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비로소 이것을 얻어 보게 되었다” 하였으니 지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군현은 지도에 대강만 나타나 있고 자세하지 못하여 상고할 수 없었다. 삼국을 통합한 뒤에 비로소 『고려도(高麗圖)』가 생겼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산맥을 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철령(鐵嶺)에 이르러 별안간 솟아오르며 풍악(楓岳)이 되었고, 거기서 중첩되어 태백산·소백산·죽령·계립(鷄立)·삼하령(三河嶺)·추양산(趨陽山)이 되었고, 중대(中臺)는 운봉(雲峯)으로 뻗었는데, 지리와 지축(地軸)이 여기 와서는 다시 바다를 지나 남쪽으로 가지 않고 청숙(淸淑)한 기운이 서려 뭉쳤기 때문에 산이 지극히 높아서 다른 산은 이만큼 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살수(薩水)·패강(貝江)·벽란(碧瀾)·임진(臨津)·한강(漢江)·웅진(熊津)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 중에서 가야진(伽耶津)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원기(元氣)가 화하여 뭉치고 산이 끝나면 물이 앞을 돌렸으니, 그 풍기(風氣)의 구분된 지역과 군현의 경계를 이 그림만 들추면 모두 볼 수 있다.

저 삼국시대에는 이리 찢고 저리 쪼개서 서로 차지하여 통일한 사람이 없다가, 왕씨(王氏)의 시조가 몸소 갑옷을 입고 싸워서 통합한 공을 이룩하였다. 그 말엽에 가서는 너무 쇠약해져서 그 조상의 구업(舊業)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천명과 인심이 다시 돌아가는 데가 있어서, 지금 우리 주상 전하가 총명하고 영웅스러운 자질을 가지고 5백년 만에 성인이 나오는 운수를 만나서 천명을 받고 인심을 따라 비로소 동쪽에 중화(中華)를 창설하고 조선이란 예전 이름을 되찾아서 새로 도읍을 한양에 정했으니, 이 지도를 놓고 가만히 증험해 볼 때가 바로 지금이다.

병자년에 한양에 와 있으면서 『삼국사』를 읽다가 그 내용이 너무 번다하다고 생각하고 외람스럽게 나의 좁은 소견으로 함부로 빼고 보태고 추려서 3권의 책으로 만들고, 또 우리 지도를 조사하여 정리해서 셋으로 만들어서 각각 책 위에 붙였으니, 모든 군현을 모두 예전 이름으로 기재하였고 그 아래에 지금 이름으로 주(註)를 붙였는데, 다만 삭정(朔庭)이 이북과 평양에서 서쪽의 지지(地志)에 기재가 안 된 것은 바로 지금 이름으로 기재하였다.

지도의 떨어졌다가 합했다 하는 것은 예전부터 말이 있다. 일(一)과 이(二)는 하늘과 땅의

생성(生成)하는 수(數)로 기수(奇數)와 우수(偶數)가 되어 온갖 물건을 화생(化生)하는 것이니, 3도 또한 화생하는 숫자다. 1이 되면 반드시 합하지 못하는 것이요, 3이 되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니, 3이 나오면 통합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고, 1이 나오면 지켜나가기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없으니, 지금 3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왕의 교화에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위의 기록을 분석해 보면 첫째, 지도는 중국에서도 진·한 이래 명나라시대까지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나라를 건국하면 이 지도부터 챙겼고 이도로 전국의 형세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통치 자료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삼국시대에도 지도가 있었지만 지도에 대강만 나타나 있어 크게 참고 되지 못하였는데 삼국이 통일되고 고려도가 제작되면서 비로소 통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풍수지리학의 영향을 받아 지도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백두대간이 강조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백두산을 조산(祖山)으로 철령을 거쳐 금강산이 되고, 거기서 다시 뺨어내려 태백산, 소백산, 죽령, 계림령, 삼하령, 추양산이 되고 한 줄기는 전라도 쪽으로 뺨어 운봉의 지리산에 멈추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물줄기는 산맥의 등허리를 타고 살수(청천강), 패강(대동강), 벽란, 임진강, 한강, 웅진(금강) 등은 서해로 흘러들어 가고 가야진(낙동강)만이 남해로 들어간다고 설명하였다.

다섯째, 삼국시대 쟁패과정을 거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였고 후에 고려 말의 모순을 극복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였는데 이 지도에서 그러한 사실을 증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섯째, 『삼국사』를 정리하여 3권으로 다시 편찬하였고 각 권의 머리에 삼국의 지도를 1장씩 그려 첨부하였다. 『삼국지도』의 모든 군현을 모두 예전 이름으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 지금 이름으로 주(註)를 붙였는데, 다만 삭정(朔庭)이 이북과 평양에서 서쪽의 지지(地志)에 기재가 안 된 것은 바로 지금 이름으로 기재하였다. 실제로 이침이 『고구려구도』와 『백제국도』의 후기를 기록한 내용이 전해진다.

### 3) 불교 세계관의 지도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융성과 함께 불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세계지도가 있었다. 인종 11(1133)년에 윤포(尹誦)가 편찬하였다는 『5천축국도(五天竺國圖)』이다(尹誦墓誌銘, 朝

鮮金石總覽 下). 이 지도는 당나라의 현장이 15년 동안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쓴 여행기인 『대당서역기』에 의거하여 만든 지도이다. 『오천축국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지도는 없고 다만 일본에 모사본이 있는데 그 지도를 참고하여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도의 모양새는 부등변 사각형처럼 생긴 남섬부주(南瞻部州)라는 대륙이 그려져 있고 대륙 한가운데에 천축국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북쪽에는 불교에서 신성시 하는 설산(雪山)이 있고 세계 4대강의 원류라고 부르는 무열뇌지(無熱惱地)가 묘사되어 있다. 남섬부주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전체를 말하는데 이 지도에 나타난 국가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호국, 거란 등이 있고, 동쪽으로는 당토(唐土), 남번, 안식국, 다마리제국과 대륙 밖으로 고려(高麗)가 보인다. 남쪽으로는 대륙 밖으로 집사자국이, 서쪽 밖으로는 서안국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의 지도는 불교적 세계관이 깃든 지도로 고려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훨씬 시야를 넓혀 인도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시야를 넓히는데 크게 공헌 하였을 것이다.

#### 4) 송에 밀반출 하려던 고려지도

고려시대에 접어들면 지도제작에 대해서 여러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목종 5(1002)년에 거란에 고려지도를 보낸 일이 있었고(『遼史』 卷11, 列傳45 外紀 高麗傳), 의종 2(1148)년에는 이심·지지용 등이 송나라 사람과 공모하여 고려지도를 송의 진회에게 보내려다가 들켜서 처벌당한 일이 있다(『高麗史』 卷17, 毅宗 2年 10月 丁卯條).

“이심(李深)과 지지용(智之用)이 송나라 상인 장철(張喆)과 공모하여 이심은 이름을 바꾸어 동방흔(東方昕)이라고 부르고 편지를 송나라의 태사(大師)인 진회(秦檜)에게 밀통하고자 하여……지용은 그 편지와 류공식(柳公植) 집에 소장하고 있는 고려지도를 송나라의 상인인 팽인(彭寅)에게 부쳐 진회에게 바치게 하였다. 이 때 송의 도강(都綱)임대유(林大有)가 편지와 지도를 가지고와 관가에 고발하였기 때문에 장철, 이심, 지지용은 옥에 가두고 국문하여 이 들로부터 모두 자백을 받았다. 이심과 지지용은 옥중에서 죽고 장철은 복주(伏誅)하였으며 그 처들은 모두 먼 섬으로 귀양 보냈다.”(『高麗史』 卷17, 毅宗 2年 10月 丁卯條)

위의 『고려사』 기록을 검토하면 첫째, 고려시대에는 목종 5(1002)년에 지도를 만든 이후에도

국가에서 꾸준히 지도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지도는 류공식 집에도 소장하고 있었으며 둘째, 지도는 외국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밀사항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는 송, 고려, 거란 삼국이 세력이 비슷하게 정립되어 있었던 시기이므로 3국은 다투어 다른 나라의 기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지도를 입수하려고 힘썼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고려는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재편성하였다. 성종 14(995)년에는 당나라의 행정구역인 10도를 모방하여 전국을 10도 개편하였다. 현종 때에는 10도를 5도 양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전국지도를 작성한 듯하다. 이 『5도양계도』는 조선 성종 때 양성지의 상소문에 나타나듯<sup>3)</sup>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되어 조선 전기 지도제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청구도』 범례에 의하면 고려 말에 유공식의 집에도 지도가 있었으며, 공민왕 때에는 나흥유가 고려지도를 만들어서 왕께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sup>4)</sup> 고려 말에 제작된 나흥유의 『5도양계도』는 조선 태조 5(1396)년에 이첨이 그린 『삼국도(三國圖)』<sup>5)</sup>나, 태종 2(1402)년에 이회가 그린 『팔도도(八道圖)』의 기본도가 되었을 것이며 그 모습을 『역대제왕혼일강리도(歷代帝王混一疆理圖)』의 우리나라 지도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태

## 참고문헌

- 방동인, 2001, 한국 지도의 역사, 신구문화사.  
조유전, 1997,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29-131.  
金良善, 1972, “韓國 古地圖 研究抄,” 『梅山國學散稿』, 崇實大博物館.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3) 『成宗實錄』 卷138, 13年 2月 壬子, (10)298d. (10)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조선왕조실록』의 책수, 숫자 298은 해당 쪽, a·b·c·d는 그 쪽 4분할 면의 한 면을 표시한다. 이하 동일.

4) 金正浩, 『靑邱圖』 凡例.

5) 李詹, 「三國圖後序」, 『東文選』 卷92下.